

캄보디아 김형기 목사 2019년 선교보고

1.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교회 (Ecumenical Church in Cambodia)

1)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교회(Ecumenical Church in Cambodia)

- (1) 김형기 목사가 담임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교회’는 교인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매주일 오전 10시에 50명 정도의 캄보디아인과 한국인 성도들이 모여 영어, 한국어, 캄보디아어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 교회당 건축

- (1) 캄보디아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는 극소수 종교입니다. 또한 이들은 가난하여 스스로 교회당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며 나무 밑이나,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일날 비가 올 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2008년에는 4개 교회, 2009년에는 1개, 2010년에 3개 교회, 2011년에 3개 교회, 2012년 2개 교회, 2013년 3개교회, 2014년에 2개 교회, 2015년에 2개 교회, 2016년에 4개 교회를 2017년에 2개 교회, 2018년에 2개교회를 건축해서 총 28개 교회를 헌당했습니다. 2020년에는 현재 3개교회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교회당이 없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 건축을 희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 캄보디아 교회 목회자 후원 및 교육

- (1) 교회당을 건축해준 교회를 비롯한 캄보디아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교회의 자립이 어렵습니다. 1주 헌금이래야 많아야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농사를 짓거나 다른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회에 전념할 수 없어서 교회성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고 오직 열정으로만 목회를 하는 현실이라 목회의 방법이나 신학적 지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월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한 달에 한번 프놈펜에 모여 한 달간의 목회활동을 보고하고 기초적인 신학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8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많은 교회들이 후원과 교육을 요청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4) 캄보디아 교회학교 교사수련회

- (1) 2019년 7월10일-12일까지 2박3일간 23개교회에서 약 150여명의 교사가 참가한 제3회 교회학교 교사수련회가 푸도스보광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교사수련회가 정기적인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련회가 지속되기 위해선 기도와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사수련회가 정기적인 모임이 되어 캄보디아교회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가득해지기를 바라봅니다.